



통권 85호

후원회 소식

발행일 1998. 11. 12. 발행인 권오현 발행처 민기협 양심수후원회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 10

- 10주년 공연

한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12월이면,
우리는 이 땅 양심수들의 고난과 아픔을 함께하는
따뜻한 자리를 만들어왔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은 인권의 달,
12월 12일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이 바로 그것이다.
89년 12월 시작한 이 공연을 한해 한해 계속하다 보니
어느덧 10년을 맞았다. 그 동안 따뜻한 공연을 위해
함께 해온 분들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며
12월 12일(토) 열번째 공연을 만든다(관련기사 13쪽).

서울 한복판 조계사 마당 한쪽에 작은 천막이 세워진 것은 지난 8월 9일 한여름 장마때였다. 적개는 2년에서 많게는 6년이 넘게 정치적 이유로 부당하게 쫓기고 있는 한총련 소속 학생 8명이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조건없는 수배해제'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간지 3개월을 맞고 있다. 한때 공안당국은 이 학생들에게 300만원~1000만

창살없는 감옥,

쫓기는 양심들에게 조건없는 수배해제를!

원까지 현상금을 걸어놓고 좌경·폭력집단이라며 잡으려 했었지만 부처님의 자비와 정의를 섬기는 조계사 스님들은 대법당에서까지 '양심수 석방과 수배해제를 위한 대법회'를 여는가 하면 법당 앞마당에서 대중집회를 여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이들이 불순세력이 아니라 애국학생임을 굳게 믿으며 학생들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민가협을 비롯한 많은 사회단체 회원들과 관심있는 개인들, 노동자와 청년학생들이 줄을 잊고 찾아와 격려하고 있으며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문화일보, 불교신문과 30여 개 대학신문들이 수배조치의 부당함이나 농성자들의 요구사항을 기사로 전하고 있으며 한겨레21, 시사저널, '말', '길' 등 주·월간지들도 기획기사로 다루고 있는가 하면 방송에서도 보도하고 있다. 민가협, 전국연합,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양심수석방불교대책위원회 등에서 주최하는 수배해제 집회를 여는 한편 이들 단체대표들이 국민회의와 법무부, 검찰청등을 방문, 이들의 조건없는 수배해제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국제사면위원회 피에르 사네 사무총장 일행도 농성장을 찾아와 격려하고 '누구든지 정치적 이유로 구속되거나 기소나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되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서명을 했다.

조계사 농성학생들의 주장은 이처럼 사회 각계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수배령의 부당함과 정치적 이유로 수배자된 이상 올바른 정치적 판단으로 풀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론화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농성을 한지 계절이 두번이나 바뀌었고 8·15정부수립 50돌기념 대통령 특별사면도 있었지만 이를 조계사 농성학생을 비롯, 수백명 학생들과 노동쟁의로 인해 수배받고 있는 100여명의 노동자들에 대한 수배해제 조치의 어떠한 깜새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순간에도 공안당국은 수많은 병력과 국고를 없애며 수배자 명단과 사진까지 펼쳐들고 전

국의 기차역,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각 대학주변 거리 곳곳에서 불심검문을 하는가 하면 수배학생의 집을 찾아가 협박과 희유를 하고 가까운 학우, 여자 친구에게까지 접근하는 등 수배자의 가족관계, 사회관계, 인간관계를 험집내고 파손시키는 또 다른 사회불안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수배학생을 잡으려는 공안당국의 발광은 이미 이철규 학생의 죽음을 비롯하여 김준배 학생을 죽게했으며 김형찬 학생에게 중화상을 입게도 했다. 쫓기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고 자는 것을 걱정해야 하고 거리를 다닐 때, 버스를 탈 때,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주의를 살펴야 하고, 사람을 만날 수도 전화를 걸 수도 없고,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를, 친구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로 잊어야만 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부모님이 큰 수술을 받아 사경을 헤메고 있어도 찾아뵙지 못하는 아픔이 있다고 그들은 말한다. 무슨 죄를 지었기에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집요한 추격을 받아야 하는가.

수배된 한총련 소속 학생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조계사 농성학생들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쫓기고 있다. 반국가단체구성원과 회합, 통신한 혐의도 있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고 가입한 혐의가 있는가 하면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 소지한 혐의등 학생마다 다르다. 그러

나이 무슨 큰 죄나 될 성싶은 법률용어를 학생들이 실제 행동한 것으로 풀어보면 이북학생들과 전화 또는 패스교환으로 통일 축전을 협의한 일, 한총련 이란 학생단체를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구성하고 회원이 된 것, 학생운동 문건이나 시중에 판매되는 책을 사서 갖고 있었던 일 뿐이다. 이러한 행동이 색안경을 쓰고 국가보안법에 대입시켜 놓으면 죄경, 이적으로 둔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북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이미 그 실효성을 잃고 있다. 남과 북은 국제연합에 함께 들어가 있으며 (국제연합은 한나라 안의 불법단체를 회원국으로 가입시키고 있지 않는다) 남북의 고위당국자끼리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남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발효 시킴으로서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했다. 이미 남쪽의 수천명 민간단체 또는 개인, 기업인, 문화, 종교, 언론인이 북쪽에 가서 같은 기관과 만나 문화와 경제관련 협약을 맺었으며 당국자끼리도 회합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그 실효성도 잊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더 이상 존속시킬 이유도 없다. 국가보안법 철폐야말로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문제 해결 인권개선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또한 한총련은 민주적 절차를 밟아 자주적으로 결성된 학생들의 대중조직이다. '일제 식민지 치하의 민족해방투쟁을 계승, 외세를 반대하고 조국의 자주화를 이루며,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주의,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 그리고 학원의 완전한 자주화 실현' 등 한총련 강령과 조직규칙, 각종 핵심 테제까지 93년 출범이후 97년 5기 한총련까지 한번도 변경된게 없다고 5기 한총련 의장은 말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자체의 반민주, 반민족(반통일), 반인권 악법임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헌법에서 밝힌 단체결성의 자유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정신을 어기면서까지 공안당국은 아직도 냉전과

공안논리에 묻혀 애국적 학생단체를 이적단체라고 시대역행적인 자의적 규정을 하고 있다. 97년 6월 10일 검찰, 안기부, 경찰, 교육부등 관계기관의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는 5기 한총련 산하 대의원대회를 비롯한 중앙조직자체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관련자 전원을 형사 처벌하겠다고 했고, 8.1 대검 공안부는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는 72개 대학 한총련 중앙 조직원 457명에 대하여 공개소환했으며 98. 6. 1 경찰청은 6기 한총련 대의원 1100명 가운데 의장 선출 투표에 참가한 675명을 이적단체 가입혐의로 사법처리하겠다 했으며 7월 28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은 제5기 한총련의장 강위원 학생 상고심에서 제5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이렇게 5기 한총련은 법률상으로는 이적단체로 규정되었고 이에 근거해 공안당국은 단지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마구잡이 구속하고 있다. 한총련 이적규정을 철회해야 한다. 청년학생을 적으로 하여 얻을게 무엇이며 앞으로 희망을 어디서 찾는다 말인가. 우리 역사를 보면 청년학생들은 언제나 조국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주역이었다. 그들은 자유로운 것만큼 책임을 다하는 정의와 열정과 애국심과 순수성을 지니고 있다. 더 이상 청년학생들의 자유 진리 창조 활동을 막거나 조국사랑 정신을 모독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푸고 있는 학생들은 구속된 양심수와 함께 이땅의 양심들이다. 양심수가 조건없이 모두 석방되어야 하는 같은 이유로 정치수배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이 조건없이 수배해제되어야 한다. 88년 12월 21일 노태우 정권은 양심수 전원석방과 함께 아무 조건없이 정치수배자 모두를 수배해제 했고 김영삼 정권도 출범직후 사면조치에서 정치수배자 310명에 대한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라는 실질적 수배해제를 했었다. 또다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오늘도 이 거리 저 골목에서 모든 권리와 자유를 잃고 있는 저들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

“이 사회 최고 도덕은 통일이다”

권민호 인권지기 일꾼

가을하늘이 청아하게 맑은 날, 김양무 선생님 부인이신 양은찬 님과 함께 전라남도 여수로 아침 일찍 향했다. 통일운동의 외길을 걸어오다 지금은 직장암으로 투병중인 김양무 선생님을 찾아뵙기 위함이었다.

지리한 고속도로를 달리고 국도를 따라 들판을, 바닷가를 달리기를 3시간 남짓, 드디어 바다가 훤히 보이는 산비탈의 현대식 건물에 도달하였다. 선생님이 투병생활을 하시는 여수자연요양병원이다. 병실로 들어서자 선생님은 누인 몸을 일으켜 방문객을 맞이하는 따뜻함을 보여주신다.

김양무 선생님의 고향은 남원이다. 1950년 9월 21일, 4대째 한의사 집안에서 3남 3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고 중학교까지 남원에서 다녔다. 당시 한의사 집안이면 매우 부유한 집안이었다. 그러나 자신들만의 생활에 안주하지는 않았다. 중조부는 동학운동에 참가하셨고 조부는 일제시대에 상해임시정부 군자금을 지원하시고 일제에게 세금을 납부하지 말자는 세금불납운동을 벌인 민족 주의자이셨단다. 선생님은 어려서부터 집안의 내력을 듣고 자랐고 이런 영향은 곧 선생님이 여러분의 체포와 구속을 견뎌내면서까지 끗끗하게 통일운동을 해온 힘의 원천이 된다.

중학교를 남원에서,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선생님은 1969년 전북대 철학과에



…> 김양무님

입학한다. 그리고 1973년 3학년 철학과 학생회장 시절, 첫 여행을 당하게 된다. 당시에 전북대 최초로 유신헌법철폐운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찰에 연행을 당하게 되고 국방부 ‘은하수 계획’에 따라 군대에 강제징집을 당하게 된다.

강제징집을 당한 선생님은 비무장지대(철원평야)에서 군 근무를 하였다. 철책근무를 하면서 저 너머 북한 마을에서 북한 주민들이 평화스럽게 소매는 모습, 농사짓는 모습을 보면서 저 안에 남과 북의 두 체제를 압축시켜 놓은 실험적 행정도시로서 ‘민족도시’를 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이는 이후 몇 번의 구속재판시 자신의 신념이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 법정에서도 증언한 바 있다). 역시 당시 폭력적인 사회의 한 모습인 군대 강제징집도 청년의 진보적 신념을 바꿔놓지는 못하고 오히려 통일에 대한 신념을 높이는 계기로 되었던 것이다.

제대를 하고 학업을 마친 선생님은 1977년에 합동통신(현 연합통신)에 입사하였다. 기자가 된 것이다. 그러나 유신시절에 자신이 쓴 사회에 대한 기사가 그대로 활자화되어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하였고 1년도 못되어 연합통신을 나온다.

이후 교사의 꿈을 안고 교사임용시험에

순위고사를 보고 수석으로 합격을 한다. 당시 수석으로 합격하면 자신이 원하는 곳이면 어느 곳으로든지 갈 수 있었다. 그런데도 도시의 조건 좋은 학교로 가지 않고 도서 벽지의 학교로 가기를 희망한 선생님은 1978년 전라남도 완도의 군외중학교로 발령난다. 당시 선생님이 맡은 과목은 도덕(국민윤리)이었다. 학교에서 선생님은 학교 게시판의 일일시사란에 '미국과 우리', '북한과 우리', '북한과 미국' 등의 내용과 함께 다양한 시사물을 게시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교장선생님과 같은 마찰을 일으켰다. 서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에서 많은 마찰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일들로 인해 1982년에 사표를 제출하고 교사생활은 그만 두게된다. 하지만 학교당국과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군외중학교의 생활에서 선생님은 많은 제자들의 존경을 받았다.

"학교당국과 마찰이 있었는데도 선생님은 교실에 들어가면 항상 학생들이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당시 학생들 중 수명의 결혼에 주례를 맡으셨고 지금도 찾아와 절을 올리는 당시 학생들이 있어요. 또 선생님도 당시 담임을 맡았던 학생들의 번호와 이름을 아직까지도 외고 있어요." 부인 양은찬 님의 말씀이다. 이렇듯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시작을 갖도록 하는 노력과 사랑을 비록 몇 년 안되는 교사생활이었지만 아낌없이 베풀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인생에서 하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금의 부인 양은찬 님을 만난다. 당시 양은찬 님은 전남대 음악교육학과(1회)를 졸업하고 이 학교 음악선생님으로 근무중이었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면서 두분은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고 이 때 선생님은 '둘 이서 위대한 사랑을 해보자'는 결혼제안을

위
대
한
사
각
이
간
막
은
서
로
에
대
한
사
각
뿐
아
니
자
조
국
에
대
한
사
각
으
로
승
복
하
자
는
의
미
였
지

하였다. 선생님은 "당시 위대한 사랑이란 말은 서로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뿐 아니라 이를 넘어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하자는 의미였지."라며 덧붙인다. 이러한 말과 함께 감옥에도 갈 수 있다는 말씀 까지도 들은 양은찬 님은 이를 받아들였고 1980년 4월 26일 결혼을 하셨다. 그리고 딸 2명을 두었다.

교사생활을 그만둔 선생님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신념에 따라 '민통련', '전민련' 등의 재야활동에 뛰어들어 정력적인 활동을 벌인다. 그리고 1994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광주전남연합'을 결성한다. 이때 선생님은 범민련 광주전남연합 집행위원장과 민주주의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 조국통일위원회장을 겸임한다. 그러나 이로인해 선생님은 일생에서 두 번째 연행과 첫 번째 구속수감을 당하게 됐고 이때부터 선생님의 연속적인 감옥인생이 시작된다. 여기서 정역2년 집행유예3년의 선고를 받고 나온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하신 선생님에게 결코 감옥따위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일까. 1995년 11월29일에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를 결성, 범민련 남측본부 국가보안법 철폐위원회으로서 정역 10월의 형을 받아 만기출소 하셨고, 1997년 7월18일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상임부의장으로서 북한동포 돋기사업으로 마련된 기금을 범민련 해외 본부에 송금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어 정역 1년의 형을 받고 역시 만기출소 하셨다. 그리고 올해 98년 8월 15일 제 9차 범민족대회(범민련 남측본부 상임 부의장)를 서울대에서 강행했다는 이유로 서울대 정문에서 연행, 구속되셨다. 범민련 활동만으로 4번째 구속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갑자기 많은 하혈을 하였고 안양병원에서 검진을 하여보니 직장암이라는 소견이 나와 10월 12일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되었고 이후 병보석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10월 26일에 전남대 병원에서 조직검사결과 암 중에서 가장 악성인 흑색종 판결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암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수술의 어려움(수술시 암의 전이 가능성)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지금은 여수자연요양병원에 입원해서(11월3일) 자연요법으로 치료를 하고 계신다.

선생님의 건강이 갑작스레 나빠진 것은 97년 구속이후라고 한다. 당시 북녘은 큰물 피해로 인해 수많은 생명들이 들것에 실려 나가고 있었고 이것을 본 남쪽의 국민들은 동포애적 차원에서 모금을 했다. 범민련 역시 모금을 했고 이를 범민련 해외본부로 송금했다. 이에 대해 안기부는 유독 범민련의 모금운동에 대해서 이적시 했고 당시 범민련 상임부의장을 하던 선생님은 안기부로 끌려가 철새없는 구타와 고문에 시달려야만 했다. 자연건강에서는 암의 원인이 사람의 각 조직에 산소공급이 부족하고 이산화탄소(독소)가 체내에서 축적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심한 스트레스는 사람 각 조직의 활동을 심하게 억제하여 암발병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즉 계속되는 투옥과 수사과정에서 폭력과 고문은 암을 결정적으로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선생님은 통일운동의 중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혹 더욱 건강에 해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도 통일운동의 분열에 대한 물음에 담담하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나는 범민련남측본부 상임부의장으

로서 통일운동 분열의 현장에 직접 있었다. 그렇지만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선량한 양심과 인성의 소유자이고 서로가 서로를 껴안을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다시 단결된 힘을 발휘하리라 생각한다”

요양병원을 뒤로하고 돌아가는 길에 양운찬 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다. 특히 어릴적 선생님은 또래의 아이들로부터 ‘큰바위 얼굴’로 불렸단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주위의 어려운 친구들을 먼저 생각하고 돌보며, 친구들에게 늘 듬직한 기둥으로 자리했던 까닭이다. 그런데 그 ‘큰바위 얼굴’이 지금은 않아 누어 있다며 안타까이 말씀하셨다. 한편으로는 통일운동을 하면서 집안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해한다해도 몸마저 망쳐 돌아온 남편이 야속하기도 하신 모양이다.

그래서 일까 선생님은 지금 죽을수 없다고 말씀하셨단다. 위대한 사랑의 한 부분을 채우지 못한 미안함, 양운찬 님께 너무 미안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이 사회의 최고의 도덕은 조국통일이다’는 가치관을 가진 한 통일 운동가가 암과 싸우고 있다. 결코 좌절하지 않고 이겨내겠다며, 그리고 이긴 후에는 군대에서 북한마을을 보면서 구상하신 휴전선내 민족도시건설론을 체계화 시키겠다는 꿈을 가지면서…….

이 사회의 최고의 도덕은 조국통일이다

- 이글을 쓴 권민호 님은 현재 광주의 인권지기에서 일하고 있다.



세상 속으로 돌아온 해장 능이

편집부

92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되어 7년 여의 옥고를 치른 뒤
다시 바깥세상으로 돌아온 사람, 백태웅. 양심수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던 그에게 다시 돌아온 세상은 어떤 빛깔의 희망일까.
도심의 먼지조차 고운 반짝임이 될 수 있는 가을날 오후,
인사동 거리에서 백태웅 님과 그의 약혼녀 전경희 님을 만났다.

〈장면1〉 가을 햇살을 닦은 연인

“아직 저녁 먹기는 너무 이른 시간이고, 그런데 속이 좀 출출하죠?”

길을 걷다가 두 사람이 봉어빵과 오뎅을 파는 포장마차 앞에 멈춰 선다.

“이 사람이 말입니다. 봉어빵 파는 곳이면 그냥 지나 치질 못해요. 내가 살 좀 빼라고 그렇게 구박해도…….”

“무슨 소리예요? 내가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욕구불만 탓이에요.”

“아니, 내가 얼마나 잘 해 줍니까.”

“곰곰 생각해 보니 태웅 씨가 제게 한 번도 정식으로 청혼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혼날짜 잡고 난 뒤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어제는 메일을 보냈어요. 혹시나 싶어서 설레는 맘으로 읽어보니 무뚝뚝하게 ‘결혼합시다’ 이 한마디뿐이지 뭐예요.”

그들에게도 이렇게 ‘토닥토닥’ 실랑이를 벌이는 순간이 있다, 세상의 모든 연인들처럼.

그러나 역시 그 실랑이란 서로에게 깊이 녹아든 사랑을 확인하는 기쁨이다, 세상의 모든 연인들처럼.

실랑이 속에서도 전경희 님은 백태웅 님 앞으로 간장 종지를 밀어주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오뎅국물을 떠서 건네준다. 백태웅 님은 전경희 님의 입가에 물은 봉어빵 부스러기를 손으로 닦아 준다.

오랜 세월 동지로서 한길을 걸어 온 두 사람. 그만큼 보통 사람들처럼 평범한 연애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아 함께 한 시간보다 헤어져 있는 시간이 더 길었던 두 사람. 그들에게 허락된 모처럼만의 평온이 가을 햇살보다 더 곱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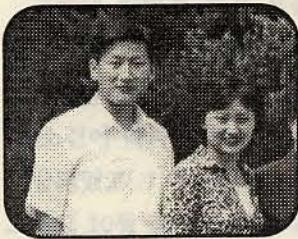
〈장면2〉 인터뷰 - 인사동 찻집에서

◆ 출소하신 지 두 달 가까이 되었는데, 그간 유명세(?) 치르느라 바쁘셨죠?

◆ 네, 좀 바빴습니다. 여기저기 인사 다니랴, 인터뷰니 강연에 옹하랴, 하루도 느긋하게 내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질서가 잡히지 않은 듯한 느낌이죠.

◆ 최근의 강연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요?

◆ 강연이라기보다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지요. 10월 12일 서울대 축제에 초대받아 전야제에서 ‘나의 삶 나의 길’이란 주제로 300여 명의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에는 가톨릭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교수님들의 요청으로 ‘새로운 천년과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600여 명의 학생들이 대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강연을 마친 뒤 체육과에 다닌다는 어떤 학생이 ‘새로운



천년과 스포츠의 역할
‘이 무엇이냐고 물어와
서 아주 재미있게 이야
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나네요.

◇ 출소하신 뒤 가장 크게
변화를 체감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뭐랄까, 상품의 포장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것이 참 신기했어요. 상품 그 자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때 전 경희 님이 옆에서 거둔다. “태웅 씨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진행자가 무엇이 달라진 것 같냐고 물었더니 ‘여자들 각선미가 왜 그렇게 좋아졌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행자도 저도 그런 대답이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죠”) 감옥 안에서 시커먼 남자들만 보며 지냈기 때문인지 거리에 나서면 화려한 여자들의 옷차림에 먼저 시선이 가게 되더군요. (이 말에 기자가 옆에서 “네,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네요”라고 맞장구쳤더니) 그것 봐요, 경희 씨. 내가 웅큼한 게 아니라니까요.

◇ 여전히 변함없이 흐르는 세상이구나 하고 느낀 것은?
◆ 박경리 소설 〈시장과 전장〉에 보면 전쟁상황에서도 시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계속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모습이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 단지 IMF 이후의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겨운 삶의 모습이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동력으로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거에요. 악전고투하는 삶은 그 자체가 현실 속에 생동하는 희망의 원천이죠. 한편, 여전히 고뇌로 다가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양심수가 사라질 수 있을까, 언제나 국보법이 철폐되고 제대로 된 민주사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죠. 세계적으로 이렇게 양심수를 양산해내는 구조를 가진 나라는 없는데 정부가 이 문제를 역사적

과제로서 단호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국민 모두가 양심수 없는 나라가 정상적인 사회라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양심수란 단어는 역사책이나 나오는 말이 될 수 있도록 DJ정부가 더욱 단호한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합니다. 진보세력 또한 양심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치열하게 방안을 모색해야겠구요.

◇ 앞으로의 구상을 좀 들려주세요.

◆ 지금은 21세기를 앞두고 새롭게 모색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운동은 지난 시기에 대한 엄정한 평가 속에서 공과를 가려내고 21세기적 비전과 접맥시키는 정확한 매듭짓기가 안 되고 단지 과거의 관성을 그대로 이어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지난 80년대 운동에서 업보가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매듭지을 것은 매듭지으면서 지난 시기의 알짜배기 내용을 가려 21세기와 연결되는 출발의 비전을 만들어 내는 데 전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운동의 주체들이 사상적인 공황상태를 극복하고 자기 아이덴티티를 확보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요즈음의 제 고민입니다.

◇ 두 분은 아주 오랫동안 인생의 동반자로서 만나 오셨지만 헤어져 있던 시간이 너무 길었던 탓에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시는 지금의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 은데……?

◆ (백태웅) 바깥에 나오니 마치 장님이 눈을 떴을 때의 신기함과 생경함에 유사한 적응과정을 겪습니다. 이 과정에 경희 씨가 항상 함께 있으니 너무 좋고 힘이 되지요. 저는 지금의 기간이 앞으로 10여 년 이상 제 삶을 규정하게 되리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매사를 조심스럽게 해나가려 하지만 더러 미숙할 때가 있어요. 바로 이런 때 모든 것을 같이 느끼고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으니 참으로 든든하지요. 그간 옥바라 지하느라 고생했는데, 이제는 제게 모든 것을 매이지 말고 경희 씨가 자신의 생활영역을 가져주길 바라고

또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언제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출발을 함께 고민하는 관계’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전경희) 태웅 씨가 감옥에 있을 때도 저는 항상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간의 격리가 잘 실감되지 않았죠. 그런데 태웅 씨가 나와서 사회에 새롭게 적용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 역시 3년간의 징역살이를 마친 뒤 사회에 적용하는 과정이 있었는데도, 늘 태웅 씨가 바깥에 있는 저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느껴왔기 때문에 태웅 씨에게 다가오는 충격들이 잘 이해되지 않았던 거죠. 이런 점들이 아주 당혹스러웠어요. 매사에 너무 신중하기 때문에 다소 답답하기도 했구요. 하지만 하루의 일과를 서로 함께 나눌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건 역시 큰 행복이지요.

〈장면3〉 사진 전시회

“이제 우리 인터뷰는 고만 하고, 재미있게 놉시다.”
찻집을 나서자마자 두 사람이 발길을 옮긴 곳은 어느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의 전시회장.

황폐한 자연과 고단한 표정의 사람들, 물질문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곳곳에 담겨 있는 전시회장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사진을 들여다보는 두 사람. 그 무엇이든 진지하게 성찰하고 모든 것을 새로운 배움의 기회로 수용하는 맑은 시선.

“사진을 자꾸 보면 어느 순간 아, 하는 감동으로 와 닿는 것들이 있어요. 감동의 세계를 창조하는 예술가의 삶은 참으로 위대하지요.”

얼핏 볼 때는 교과서적인 모습으로만 생각되지만, 백태웅 님은 가슴 가득 뜨거운 열정이 끓어넘치는, 언제나 젊은 감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조용하고 은화한 이미지의 전경희 님 또한 그에 못지않다. 두 사람은 비트가 강한 록음악을 즐기며 신세대답게(?) 컴퓨터 통신으로 메일을 주고받기도 한다. 결코 젊지 않은 세월 징역

살이로 청춘을 날려 보냈어도 그들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삶의 열정을 길어올리는 ‘언제나 청춘’이다.

〈장면4〉 술잔을 부딪히는 정답의 시간

어느새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인사동 거리. 일행은 이은경·정명섭 부부(두 사람은 92년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되어 각각 5년의 징역살이를 마친 뒤 작년에 결혼하여 현재 남부터미널 역 근처에서 일식집 ‘대지’를 운영하고 있다)의 집으로 향했다. 졸지에 기자도 푸짐한 저녁을 맛볼 수 있게 되었는데, 역시 옛동료와 함께 하는 자리란 고향집 같은 것인가보다. 술잔이 오가고 연신 웃음이 그치지 않는 정답이 이어진다. 얼마 전 첫아이를 낳은 이은경·정명섭 부부가 들려주는 보통사람들의 세상살이, 결혼을 앞둔 백태웅·전경희 예비부부의 사랑다툼 — ‘이 사람이 도대체 세상 물정을 몰라요’ 끝없이

이어지는 전경희 님의 고자질(?)과 ‘내가 요즘 이 사람한테 구박만 받고 삽니다’ 엄살 섞인 백태웅 님의 하소연, IMF 이야기, 징역쟁이들의 감옥생활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잔치에 뚝 빠져 있다보니 어느새 자정이 임박한 시간이다. 그야말로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는’ 격이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데, 백태웅 님이 일전에 택시를 탔다가 주머니돈이 달랑달랑해서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른다며 차비에 보태라고 만원짜리 한장을 가만히 쥐어준다. 한사코 마다했더니 “취재글 잘 써달라는 뇌물입니다”라며 너스레를 떤다. 거절할 수 없는 소중한 배려, 귀한 마음. 그는 이런 사람이다.

백태웅, 그가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와 우리에겐 아름다운 희망이 하나 더 늘어났다.



김광철 회원을 찾아서

편집부

매달 한 번 가는 후원회 산행이나 역사 기행, 또는 수련회 등 각종 행사에 빠지지 않고 모습을 드러내는 후원회원 중에서, '무늬(?)만 장기수 선생님'인 회원이 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행도 열렬히 참가하는 김광철 회원은, 후원회원이 아니라 장기수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것이 더 잘 어울릴 나이.

처음에 산행을 온 사람은 누구나 장기수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다가가 슬며시 대화를 전년다면 지나친 과장일까. 직장은 용인군 수지면 선진 부동산.

그러나 두꺼운 돋보기 안경 너머로 고리타분한 책을 들여다보는 회원을 상상하는 것은 금물이다.

항상 밭로 뛰어다녀야 직성이 풀리고, 나이보다 적어도 20년은 젊게 사는 푸른 50대의 김광철 회원을 찾아, 용인군 수지까지 찾아갔다. 자타가 공인하는 '재미'와 '진지'를 동시에 겸비한 유쾌한 아저씨와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했다.



사무실 풍경1-음식은 정성으로 맛을 낸다

(된장 넣고 직접 삶아 준비해 놓은, 텔이 승승 박힌 족발, 고추장 버무려 만들어 주신 돼지 불고기, 설렁탕, 무청 김치……. 부동산 사무실의 탁자에는 손수 요리하신 진수 성찬으로 금방 가득 찼다.) 조미료가 잔뜩 들어간 식당의 요리는 좋아하지 않아 직접 해 먹는 경우가 많다.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직접 해 먹는 것도 기쁨이다. 그리고 진짜 맛있는 곳을 발견하면 잊지 않고 적어둔다. 그 지방의 정말 맛있는 집으로, 모두 직접 먹어보고 잊지 않으려고 써 둔 것이다. 이제 나를 아는 친구들 중 어느 지방을 여행할 때면 어느 곳에 가서 음식을 먹어야 할지 물어 오는 친구들도 있다. (아무래도 이 음식에 대한 일가견을 글로 남기셔야 할 것 같다.)

사무실 풍경 2-읽은 것은 실천한다

(사무실 안의 책장에는 밀길 만큼 많은 종류의 많은 가짓수의 책들이 있다. 주로 대학교 때 읽었던 책들이다. 책상 위에는 한국 민중사, 해방 신학,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 등이 쌓여 있다.)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읽는 것을 좋아했다. 집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읽었다. 주로 읽는 책의 종류? 물론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참 다양하지. 그러나 소설이나 드라마는 이제 읽지 않는다. (별로 특이하지도 가치가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란다.) 특히, '말' 지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말' 지에 대한 애착은 아주 큰데, 판금 때는 직접 본사에 가서 얻을 정도로 열혈 독자였다. 민가협을 알게 된 것도, 후원회를 접하게 된 것도 '말' 지를 통해서였다. 그러다가 스스로 후원회비를 내면서 소식지를 받아 보게 되었고, 산행을 접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기쁨을 찾게 된 것이다. 며칠 전, 서울대 대동제에서 하는 민가협 장터에 도와 주려 갔는데, 정말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을 했지. 이젠 그전처럼 먹으로 폐지어 몰려오는 학생들도 거의 없다. 일을 도와 주려 갔는데 정말이지 도와 줄 일이 없었다. (사무실 문을 일찍 닫고 쓴살같이 달려와 설거지까지 도맡아 하신 후의 이야기이다.)

한때 작가를 꿈꿨다

(인터뷰를 위해서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할 틈도 주지 않고 시작된 스무 살 무렵의 이야기이다.) 책 읽는 것 못지 않게, 발로 뛰는 것도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글을 쓰는 것을 무엇보다 좋아했다. 정말로 글 쓰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적도 있었다. 예전에는 잡지에 낙서판의 독자 투고를 하는 난이 있었다. 우스갯소리도 좋고, 그저 그런 이야기를 써서 보낸 것 중에서 재미있는 것을 게재해 주는 것이었는데, 그 난에 꾸준히 실렸다. 열심히 써서 보냈고, 그러다가 그 즈음 텔레비전 프로 중에서 개그 프로가 신설되면서 담당 PD에게 연락이 왔다. 그 당시에 코미디가 아니라 개그라는 장르가 우리나라에 막 생겼을 때다. 그래서 1년 동안 방송국에서 스크립터가로 활동했다. 물론, 정말로 내가 할 일인가 고민한 끝에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여 지금의 직업을 갖게 되었지만, 개그맨 전유성과는 아직도 형 아우 하는 친분이 있다. 그리고 집사람도 펜팔로 만난 사이다.

부인과 남편은 닮는다는데

집사람 얘기는 안하고 싶은데……. 서울로 상경한 부여 아가씨와 군인 아저씨가 서울역에서 약간 촌스럽지만 설레는 첫 만남을 가졌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부부는 닮는다는데 나와는 정반대다. 이를테면 천사와 악마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말이 없고 따뜻하고 성실한 최고의 아내다. 성당에 아주 열심히 다니는데, 성당에서 최고의 봉사라고 하는 연령회를 맡아 이끄느라 매우 바쁘다. 원령회는 장례식장에 죽어나니면서 애도하고, 말씀을 외어 주고 하는 일을 하는 모임이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하는 일, 영혼들을 위로하는 일이다. (그래서 두 부부는 너무 닮았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위해 두 부부는 동분서주하며 살려고 한다. 기쁘고 행복한 곳보다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삶을 산다는 점에서 그렇다.)

악한 것이 아름답다?

아침 잠이 줄어 일찍 일어나니까, 아침 일찍 집을 나오는 것이 습관이 돼 있다. 그런데 수요일과 목요일은 다른 날보다 출근 시간이 좀 늦다. 왜냐하면 텔레비전에서 사람 찾아 주는 프로를 수요일과 목요일 아침에 하는데 그것을 꼭 보고 나와야 직성이 풀리고, 그렇지 않고는 발길이 멀어지지 않는다. 오늘 아침에도 한참을 울다 나왔다. 참 기구한 사연들이 그렇게 많은지. 나는 곁은 강하고 재미있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악한 구석이 많은 편이다.

안타까운 것도 많고, 할 말도 많고, 읽고 싶은 책도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고, 좋아하는 것도 아직은 매우 많은, 스무 살짜리 딸과 스물일곱 살짜리 아들을 둔 김광철 회원. 처음에 후원회 모임에 참석하고, 산행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 준 그래서, 흠히 정들었던 몇몇 회원들이 있다. 지금은 무엇을 하는지 참 궁금하다. 그리고 조금씩 관심을 적게 두는 것이 어렵다. 사람이 적으니까 산행도 점점 쓸쓸해지기도 한다.

말로만 참된 삶을 살겠다는 공허한 외침이 많은 시기에는, 올바르고 참된 삶을 찾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했다는 안타까움으로 일상에 안주한 50대를 상상해 보라. 그러나 그의 철학에서 언제라도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배울 수 있다. 그의 외침은 아주 간단하다. 삶을 재미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나무, 심다

박성희



나무를 심고 싶었다.
아프다는 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이며
모욕스런 일인지를 배우는
날들이 길어지면서 어린
가지가 자라 아름드리
나무가 된다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도 불쑥 나무를
심고 싶다고 중얼거렸다.

실은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아팠던 탓도
있겠지만 작년 일을

떠올려 보라는 말에 거의 일주일을 애썼지만 머릿 속은
휑할 뿐이다. 기억을 불러오기가 어지간히 힘들다.

우리는 지난해 이맘때 어김없이 공연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공연준비에 끼어드는 것을 감투 쓰는 일로
착각해서 악착같이 달려들고 하는 나와 몇몇는 공연이
어떻더냐고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공연장 바깥에만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며칠 동안이긴
하지만 정말 죽어라고 뛰어다닌다. 준비할 당시에는
다급해서 뛰어다니지만 지나고 보면 알게 된다. 이
공연의 존재에 대해 스스로가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차라리 달아나고 싶은 것이다. ‘올해도 가고 마는구나.
어머니 가슴에 멍이 든 채로, 그 눈물이 살갗에 얼어붙은
채로, 간힌 사람만이 간힌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간혀
일그러진 채로…’ 한해 동안 이기심으로 눈가리고 잘
먹고 잘 뒹굴다가 이때쯤에 아프게 찔린다.

이 흥분째에 이르렀으니 연륜에 어울리게 움직이자고
목소리를 모았다. 그래서 도우미 활동도 체계를 갖추고
내용도 남기자고 도우미 조직을 만들어 발대식도
성대하게 치뤘다. 그뿐인가. 비디오 세대답게 화면도
보여주는 기발한 발상을 냈다. 그래서 예술(!)하는
친구와 그의 몸값보다 더 나간다는 비디오까지 물색했다.
거기까지는 좋았다. 뜻도 좋았고 호응도 좋았다. 그러나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다. 또 인간이
나무막대기를 농삿일에 이용하는데 2백년이 걸렸다는
말이 우스개 소리가 아니다. 그 훌륭한 의도와 시도를
입에 올리기에 앞서 해야 할 일들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도우미 활동을 충분히 연구했어야 한다. 요란스럽게
뛰어다니기보다는 날날의 움직임을 전체 율동의
한부분으로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했다. 한마디로
준비하는 일과 준비를 지휘하는 일의 차이를 알아야
했다. 이 차이를 아는 데에도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지금 공연준비가 올해의 공연만 아니라
다음해, 또 다음해 공연 자체를 있게 하는 씨앗임을 아는
깨달음, 하다못해 눈치라도 있어야 했다. 보기에는
준비작업이 여태까지와 똑같이 순조로와 보였을지라도
도우미들은 참혹했다. 이것저것 다 해보려는 욕심에
우왕좌왕하기 일쑤였고 일을 하면서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쏭달쏭하는 지경이었다. 애초의 계획들은
물건너간 지 오래였고 끊는 솔에 들어간 미꾸라지처럼
날뛰기 시작했다. 추위에 떨면서 포스터 붙인 뒤에
불찌러 들어왔다가 손녹일 틈도 없이 내몰리는 일은
당연하다시피 우편발송 작업한다고 자정 너머까지
붙들리기는 예사였다. 처음 걸음한 사람들은 더
불만했다. 신발을 벗자마자 속사포처럼 내뱉는 말에
되묻지도 못하고 풀칠이고 가위질이었다.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며 두 번 다시 오지 않겠다고 벼른 사람도
드물지 않을 것이다.

돌이켜보니 하지 않았더라면, 거기 없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 그때 이후로 땅을 노려보며 걷는
버릇이 생겼다. 제 욕심에 제가 지쳐 터덜터덜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갈 때 “동대문역 1번 출구로 나와
신한신용금고 골목으로 200미터 올라와 제일은행 맞은 편
대일슈퍼 2층”에서 멈춘 수많은 발걸음들에 머리를
조아리며 골목을 내려가다 붙은 벼룩이다. 이름은 커녕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이 맞닿은
“양심수”라는 의식의 지점을 되새기며 공연만이 공연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지금도 그때의 늦은 밤들이
또렷하다.

나무를 서쪽 길섶에 심었다. 길섶이라 가지가 꺽일지도
모르겠고 중간에 잘릴지도 모르겠다. 주변의 언덕과
과수원의 나무들 탓에 넉넉하게 5년은 자라야 별과
바람을 맘껏 누릴 것 같다. 거칠 것 없는 동쪽 구릉 대신
서쪽 길섶을 고른 까닭은 노을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무와 풀과 돌과 흙언덕들이 조금씩 별을
거둬 노을 풍경이 되고 어둠을 삭히고 마침내 시간을
끌어안아 그루터기가 되어갈 것을 생각하니 숙연해진다.
어린 나무 앞에 서니 첫공연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느껴지는 듯하다. 그들이 아홉번째, 열번째를 기약하며
시작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그 시작이 바로 아주
어린 나무였으며 그 나무는 스스로 자라 오늘에 이르렀을
것이다.

나는 이번 공연은 준비하지 못한다.

병원냄새가 가시긴 했으나 아직은 이곳에서 별바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별에 앉아서 10년된 아름드리 나무를
그려볼 참이다. 그 나무의 물관과 체관을 통해 땅속
잔뿌리 털에서 꼭대기 잎새 끝까지 흐르는 기운을 만나고
싶다. 올해도 누군가 파리하고 초췌하진 낮으로 골목을
늦은 밤 홀로 걸어갈 것이다. 그가 가엾기는 하지만
부럽기도 하다. 그의 울분과 절망이 우리의 나무를 한뼘
자라게 하고 새 기운을 일으킬 터이니…

이 글을 쓴 박성희 회원은 오랫동안 <후원회소식> 기자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공연에서
도우미단을 이끌며 공연의 꽃을 피운 주역이었다. 현재는 몸이
아파 시골에서 요양중이다.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 10’

- 10주년 공연

● 일 시 : 1998년 12월 12일(토) 오후 6시

● 출연진 : 정태춘 박은옥 / 김종서 / 사랑과 평화 / 전인권 /
김창원 / 인치환과 자유 / 자우림 / 꽃다자 / 조국
과 청춘 / 윤도현 밴드 / 문성근(영화배우) / 원창
연(배우) / 박노해(시인) 를 비롯한 10년동안 출연했던 가
수, 배우, 시인 총 출연!

함께 할 도우미를 모집합니다!

또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따뜻한 방안에 앉았어도 시린 이 겨울에, 온기 한점 없
는 0.75평 독방안에 갇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12월이면,
우리는 이땅 양심수들의 고난과 아픔을 함께하는 따뜻
한 자리를 마련해 왔습니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은 인권의 달, 12월 12일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
의 밤’이 그것입니다. 89년 12월 시작한 이 공연을 한
해 한해 계속하다 보니 어느덧 10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공연을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
리의 하나된 마음과 작은 행동이 있었기에 10년이라는
최장기 공연을 이루어 올 수 있었습니다.

열번째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에 함께 할 도
우미를 찾습니다.

포스터를 붙이는 일, 발송작업 하는 일, 표 파는 일, 원
고 배달 가는 일, 사무실 업무보조 등 무궁무진한 일들
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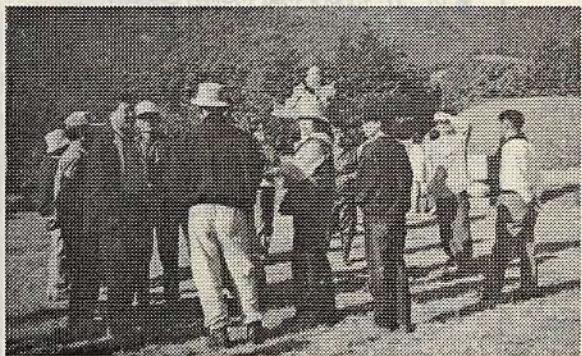
회원 여러분의 작은 힘이 모이고 모이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퇴근 후나 짹짬이 시간나는 대로도 가능합
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도우미 신청 : 763-2606

아우가 물네요, “무얼 보고 오는 걸이요”

김현희(회원·전문번역가)



… 흥선대원군 아버지 남연군 묘를 둘러보며

맑은 날씨였지만 추울까봐 보따리를 털었지만 조끼랑 웃만 잔뜩 챙겨 넣어 가지고 떠났습니다(마음에 담아 가지고 가야 할 준비물들은 소홀히 한 채로 말입니다).

모이기로 한 곳에 도착해서는 권회장님, 송간 사랑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차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구영 선생님, 홍문거 선생님 두분 어르신께서 가장 먼저 와 계시는게 아니겠습니까!(아!) 하나둘씩 속속 도착하는 회원들의 면면이 정말 다채롭습니다. 엄마 아빠를 보호자로 대동한 모아라 모두리 회원, 유모차에 다인아를 태우고 한손으로는 아들 준철이를 잡고 거기다가 배낭까지 들쳐맨 용감한 모지희 회원, 세식구가 모두 참석한 바우네, 또 훌쩍 키가 자라 중학교 3학년이 된 나영이, 영민이 등 나이 어린 회원들이 눈에 쏙 들어오더군요.

드디어 출발~

망태기에 밥알 주워담 듯, 가는 길 중간에서도 회원들을 차에 모아 담으면서 갑니다.

낯선 얼굴, 낯익은 얼굴, 모두들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를 하고 두련두련 이야기 보따리를 풀면서, 이번에는〈예산, 서산, 홍성 지역의 문화유산과 항일유적지〉를 둘러보러 갑니다.

날이 저물어 어두워져서야 하룻밤을 지낼 수 덕사 앞 수덕여관에 도착, 맛나게 저녁밥을 먹고는 모두 큰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이번 역사기행의 안내를 맡으신 예산공고 역사 선생님 이예선 님의 강의가 시작됩니다. 내일 둘러볼 곳들을 슬라이드로 보여주고 요점을 짚어가며 진지한 설명을 하신 뒤, 덧붙이는 꼬집는 듯한 농담 한마디가 진짜 맛깔스럽습니다.(추사고택 지을 때, 고을마다 백성을 불러모아 부역을 시켰는데... 너네는 사랑채. 너네는 안채, 이런식으로 나누어 시켰다는 거예요, 양반 사대부 권세가 대단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통치배들이 백성 고생시키는 끝이란!)

수덕사, 서산마애삼존불, 남연군묘, 추사고택, 개심사, 해미읍성, 홍주성, 의총, 그리고 내포지역 갑오농민전쟁과 의병활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밤길을 달려오신 민족문제연구소 김봉우 소장님께서는 아직도 깨끗이 쓸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일제 잔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폐해가 지금까지 남아 우리 민족의 삶을 어떻게 짙어 먹고 있는지 구수한 입담이었지만 뼈아픈 반성을 불러오는 강의였어요.

이어서 뒷풀이 시간! 그런데 뒷풀이 시간을 마무리 짓고 자리를 정리하고 있는데 홍경선 선생님의 강력한 항의 — 지난 여름수련회에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셨는데 그때 약속하기를 다음번

에는 반드시 노래를 부르시겠다고 하셔 —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보이셔야 한다는 것이었어요!(우아! 먼저 자리를 뜬 분들 메롱!) ‘바위처럼’ 을 부르시고는 미완성이지만 요즘 연습 중이시라는 ‘동지가’까지 부르셔서 감동을 안겨주셨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오래도록 새로운 노래를 많이 들려주세요!!

다음날, 아침밥 먹기 전에 수덕사 뒤쪽 덕승산 산행이 있었습니다. 꼬마 회원들이 무척이나 씩씩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이상한 날씨로 인해 예전보다 단풍이 예쁘지는 않다고 하지만 모두들 산의 정기를 들풀 받아 오셨겠지요?

가는길에 차안에서 설명을 들으며 남연군묘에 도착. 뒷등 참 좋더라구요. 하지만 파렴치한 도굴사건 때문에 오페르트 길잡이를 섰다는 누명을 쓰고 천주교 신자들이 가혹한 탄압을 당하고 죽어갔다고 하니 그 뒷등이 명당(?)인지 백성의 피를 부르는 ‘흉당’이었는지… 옛날에 그 자리에는 가야사라는 절이 있었다던데 그걸 밀어버리고 무덤을 썼다고 하니, 그 권세또한 하늘을 찌르고… 아무튼 경치는 좋구나 하면서 둘러보자니까 아래쪽에 돌부처 하나 세워져있는게 보이네요. 그쪽으로 풍수지리설 상의 정기가 빠져나간다 하여 그걸 막으려고 세웠다고 해요. 그런데 골짜기를 위로 쳐다보면서 산쪽을 향해 무덤에 등 돌리고 서 있는 그 미륵불이 마치 뭔가 알고 그리 서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에는 ‘백제의 미소’라 칭송받는 마애삼존불을 만나러 갑습니다. 마애불이라는 것은 바위면을 파서 부처 모양을 새기는 것을 이르는데 인도의 석굴에서 전래된 것이라 합니다. 깁아들어가서 모양을 내는 ‘오목새김’이 있고, 깁아파내서 도드라지게 하는 ‘돋을새김’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돌을새김 양식이 주가 된다고 합니다. 해가 떠서 기울어 감에 따라 표정이 바뀌어 다른 얼굴 다른 미소를 보게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은 보존각이 세워져 자연빛을 가리므로 안으로 들어가 전구를 비추면서 옛 미소를 감상하였습니다. 모두들 탄성을 금치 못했어요. 그런데 일제 때 왜놈들이 여기 삼존불을 빼어가려고 정으로 쪼아내다가 실패했다던데, 그로 인해 오른쪽 야사여래의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없었습니다 (왜정 때 훼손당하고 침탈당한 우리 문화재가 한둘이 아니라 온 땅에 널려 있음이 새삼스레 울화를 부릅니다). 문화재 발굴 당시의 일화가 전해지는데, 보원사 터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큰 절집이 있었다면 주위에 관련된 유적이 있으리라 여겨 지나가던 나뭇꾼에게 물었더니 “마누라 둘을 거느린 산신령이 저 위에 살고 있다.”하여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뭇꾼이 보았을 그 산신령의 미소를 생각하니 슬며시 웃음이 나오더군요, 재미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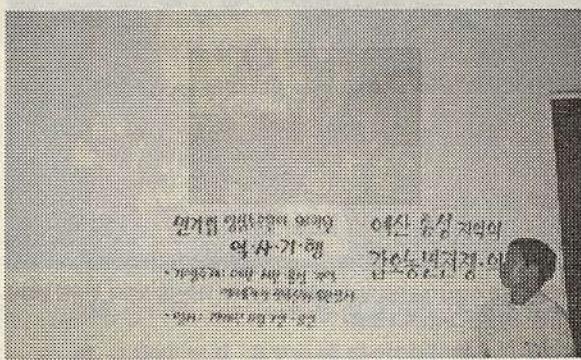
…→ 아침 일찍 수덕사 대웅전의 뒷에 빠져든 우리는 너머 덕승산을 올랐다. 만공탑 앞에서 여기 안 나온분은 그시간 자고 있었다.

불교가 이땅에 들어온 것은 새로운 통치이념이 필요했던 왕조에 의해서 였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백성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인자한 미소를 품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근엄한 얼굴로 ‘표정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백성들은 고단한 삶에 희망이 되어주던 미륵신앙을 지니게 되었답니다.

삼존불을 보고나서는 절집을 찾아갔습니다
상왕산 세심동(洗心洞) 개심사(開心寺). 올라

가는 길의 솔향이 그윽했고 작은 연못이 정취가 있더군요, 고즈넉한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는 심겸당의 절박한 맛과 휘어진 나무 등지를 자연 그대로 써서 지은 종각이 정겨웠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중간중간에 마주치는 유적에 대해 이예선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다음에는 해미읍성을 향했습니다. 반듯하니 쌓아올린 돌축대의 모습이 외곽에 오롯이 남아있는 것이 인상깊었습니다. 원래는 바다 가까이 있었던 성인데 간척사업으로 물으로 쓰러져 들어온 형상이라고 합니다. 왜구나 여진족의 침략이 물으로 80여리에 이르기까지 하여 군사, 행정상 아주 중요한 길목이어서 그에 대비하여 성을 쌓게 되었고, 읍성이란 원래 백성이 들어와 살던 성을 이르는 것이라 합니다. 70년대에 복원되면서 공원이 되어 아무도 살지않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천주교 박해 사건으로 더 잘 알려지게 되었다는데, 당시



… 역사기행은 입체적인 공부시간이 특징이다. 우리 일행의 길잡이를 하셨던 이예선 선생님의 내포땅 슬라이드 강연

신도들을 처형하는데 쓰였다는 공원안의 호야나 무가 눈길을 끌었고, 동헌앞 담장너머 솟아있는 언덕이 뭔가 했더니 일제때 신사가 있던 자리라 합니다.

다음으로는 바닷가에 들러 바람도 쐬고 새우로 입맛을 다신 뒤, 다시 갈길을 서둘러 ‘의사총’으로 향했습니다. 도달해 보니 뉘엇뉘엇 어두

워지고 있었습니다. 1906년 3월에 있었던 충남 서포지역 농민들의 항일 의병전쟁때 참살된 시신들이 모셔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1894년에 있었던 갑오농민전쟁 때 농민군의 시신이라는 다른 견해도 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지역 옛 선인들의 반외세 자주화 투쟁의 냇이 어려 있는 장소라 숙연했습니다.

어두워지는 하늘을 따라 돌아오는 길을 재촉하는 차안에서 이번 역사기행의 뜻을 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구영 선생님께서 이르시길, 주마간산으로 이렇게 지나치면서 돌아보긴 하지만 옛사람들이 살았던 자취를 살피며 우리의 오늘을 어찌 살아야 할지 마음에 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뜻깊은 말씀이십니다. 노중선 선생님께서 이리 좋은 역사기행을 나중에 양심수후 원회가 할 일이 없어질 때 후원회의 큰 사업으로 키우라고 이르십니다. 얼마나 뿌듯한 소망인지요. 나중에 북녘 땅 고을고을마다 옛 백성들의 고단했던 삶과 새세상을 일구어낸 그 신命을 되새겨 일깨우며 돌아보려 다니는 상상을 하며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새로운 회원도, 낡은 회원(?)도 모두들 돌아가며 감회를 한마디씩 새겼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지금 그 땅에 뿌리내리고 살고 계신 농민회 분들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과 일정이 촉박했던 탓이긴 했지만 어르신들의 말씀을 좀더 자세히 듣지 못한 것이 미진하게 남았습니다.

다시 나의 일상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와 신을 벗고 안으로 들어서려는데, 동생이 묻더라고요, “무얼보구 오는 길이우?” 그래서 빙긋 웃었습니다.

돌아오는 내 보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들이 한가득 들어 있었으니까요. 자리에 누워서도 그 소중한 것들을 다시 매만져 보느라 한참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둠 같은 곳을 수록 자유의 해설은 더욱 간절하고

유병문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96년 동국대 총학생회장·4기 한총련 조통위원장

15일 . . .

가을이 깊어지나 보다, 유난히 아침 어깨가 시린 걸 보니. 70일에 가까운 한网投은 쉬 자리를 텔고 일어서는 걸 주저하게 만든다. 기상을 할 때마다 마치 산을 걸어지고 일어나는 기분이다. 그러나 아무도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진 않는다.

얼마 전에 감옥에서 온 편지가 문득 생각난다. 가을은 가을로 있다기보다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있다는 말, 그 말을 읽는 순간 감옥 안에서는 바깥에서 느끼는 계절의 순환마저 다르게 느끼고 있구나 싶어 가슴 한끝이 시렸다.

오늘도 우리의 생활은 비닐천막을 걷어올리는 일로부터 시작한다. 어둠에 갇힌 우리들의 삶에 희망의 환한 햇살이 들이치도록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랜 시간 한网投을 자면서 우리의 꿈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투쟁을 통하여 수배문제를 공론화시키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작한 조계사 농성 70일이 가까워져 오는 동안 집회며, 시와 노래의 밤, 신문발행, 언론홍보 등 숱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죽비소리에 맞춰 108배를 울린다.



전엔 아침 10시에 하던 것을 요즘은 기상 직후 바로 하고 있다. 처음엔 새벽에 하는 것이 조금은 더 힘들었지만 이것도 서너 번 하다보니 익숙해지고 외려 더 좋은 느낌이다. 하늘이 열리기 전에 시작하는 108배가 끝나고 나면 조금씩 하늘빛이 밝아져온다. 땀방울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힐 정도하고 나면 잠시 앉아 참선으로 마음을 다스린다. 가끔 새들의 울음이 귀를 정갈히 씻어주는 것도 마음을 상쾌하게 한다.

싸르락싸르락 싸리 빗자루 소리. 매일 대웅전 마당에 떨어진 낙엽이며 쓰레기들을 쓸면서 내 마음의 허접쓰레기들도 쓸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리저리 팔을 놀릴 때마다 그 만큼 깨끗해지는 마당만큼 내 마음도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루 세 끼의 식사는 농성생활의 작은 기쁨이다.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 그것은 조국의 운명을 책임지는 일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얼마 전에 병환으로 고생하신다는 계훈제 선생님 소식이나, 김남주 시인의 죽음 등을 상기해보면 우리들에게 건강이야말로 애국이란 말이 새삼스럽지 않다.

9시 조회는 전체 일정과 자기 맡은 일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요사이에는 주요한 이슈를 가지고 시사해설을 한다. 비록 몸은 조계사 안에 갇혀 있다해도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은 이 세상을 다 품고도 남아야 하니까.

오늘은 부모님들이 올라오시는 날이고, 내일은 집회가 있는 날이라 더욱 바쁘다. 저녁이 되니 부모님들이 한 분, 두 분 오신다. 수배자 자식을 두고 하룬들 맘이 편하랴 미는 그래도 오늘같이 얼굴이라도 볼 수 있는 날은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는다. 뭔가 해주지 못해 안달하시는 부모님들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마도 수배가 해제되어 하루속히 가정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닐까 싶다. 허나 그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걸 안다. 이 거리, 저 거리를 불안에 떨며 헤매

고 다녔던 기나긴 수배생활, 그때의 일들은 정말이지 기억하고 싶지 않다. 감정적으로 흐르는 건 금물이라 고 채찍질하며 몇 달만에 든 수화기 저편에서 울먹이는 어머니 때문에 참다 참다 울어버렸던 일, 품 떠난 지 몇 해째 되는 자식을 두고 이날 만은 어찌지 못해 어머니 가슴의 둑이 무너져 울음 바다가 돼 버렸고 아무말 도 하지 못하고 한동안 눈물만 흘리다 수화기를 내렸놓고 말았던 일, 베스를 기다리다 다가서는 옆 사람을 곁눈질로 경계하다가 그냥 돌아서 버린 일, 순대 국밥을 먹다 막 들어와 곁에 앉는 사람들을 일일이 의심하다가 못내 답답해져 숟가락을 내려놓고 식당을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일, 보고 품에 목이 메어도 편지 띄울 수 없는 그리운 사람들을 생각하다가 아무리 울려다봐도 끝없는 하늘 향해 긴 함성을 들어놓았던 기억들.... 이제는 기억의 저편에 묻어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랫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은 밤이 깊도록 피곤함도 잊은 채 도란 도란 이야기 꽂을 피운다. 지금도 수 배자임은 변함없고 또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 있긴하지 만 그래도 보고픈 사람들이 날 찾아줄 수 있으니 그만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사람들은 벌써부터 음식장만에다, 잠자리 마련까지 하느라 분주하다. 그래 언제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들께 따순 밥을 지어드린 적 있는가? 잠자리 한 번 보살펴 드린 적 있던가? 수배문제가 해결되면 우

리가 다 해야할 일이다. 가족모임은 밤 11시가 넘도록 진행됐다. 많은 분들이 지방에서 올라오시느라 피곤들 하실 텐데 그래도 자식들의 문제라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뜨시지 않고 계셔 주셨다.

16일 . . .

여느 아침보다 분주한 아침이다. 부모님들과 식사 때문에 두 상을 차리고 국회에 갈 차를 부르고,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스님 면담 준비까지. 일이 많을수록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하나 하나 노트에 기록하면서 일을 정리해야 빠뜨리지 않는다.

10시 총무원 사회부장 스님과의 면담에 부모님 10여분이 들어가서 불교계에서 자식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서줄 것과 부처님 품에서 보살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곳저곳에 자식들의 문제를 호소하시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한 편으로는 죄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자랑스럽다. 자식들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부모님들이 국민회의 한화갑 총무를 만나기 위해 떠나시고 몇 사람은 집회 실무 준비에 바쁘고 또 몇은 오찬회동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전화로 일일이 확인하느라 바쁘다. 그나마 오찬회동이 진지한 분위기에서 부모님들께서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하셨다니 다행이다.

역사적인 수배가기족협의회(수가 협)가 결성되었다. 준비는 미흡했지만 공식적으로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어진 집회에서 삭발을 했다. 부모님들이 보시는 앞에서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조국을 사랑했다는 이유, 독단과 독재, 부정과 부패를 일삼은 정권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수배 받은 것도 서러운데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지금까지 찬 바탕에서 한껏장을 자며 농성을 해야하는 것이 서럽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한참을 싸워야 한다. 눈이 내리고 겨울 삭풍이 불지라도 승리를 일궈낼 때까지 싸우고 또 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한 바람에 이리저리 혼들리는 머리칼 같은 마음들일랑 잘라내 버려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어둠 속에 있지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자유의 햇살이다.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다짐하고 다짐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닌 어둠을 밝힐 등불을 찾겠다는 것이다. 그 등불은 다름 아닌 우리들의 투쟁 속에서 피어날 것이다. 믿음인 굳센 자에게 역사는 승리로써 그 답을 주리라 생각한다.

- 이글을 쓴 유병문 님은 1972년 부산에서 태어나 1992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입학, 1996년 동국대학교 총학생회장, 제4기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역임, 연세대 통일축전 주도협의로 사전구속영장 발부되어 지금까지 수배중. 현재 조계사에서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 해제촉구' 농성중이다. 시집으로 〈양수리에서〉(시와사회 펴냄)가 있다.



감옥에서 온 편지

양희철(광주교도소 수감중)

선생님께.

먼 밭에서 본 무등산이 곱습니다.

입동은 어제로 지난으나 남녀의 산하는 아직 가을기운이 성한채 남았습니다.

거두어 들인 벽판, 허허로울 터이지만 그래도 몸 풀고 난전답장을 걷고 싶습니다.

계절의 한 꽃을 아직 드러운 푸르르고 싱그러운 무밭, 배추밭에서 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저에게 남아있는 푸르름을 짜내어 견주어보면서 겨울을 기우하고

다음에 이어서 올 새봄의 색깔을 짐작해보고 싶습니다.

물기 사라지고 빛깔 바랜 몸과 마음일지라고 움켜쥐고 비틀어 짜내는 응축의 정화,

거기 겨울을 이기고 봄을 가꾸어 길러내는 봄, 봄의 빛깔과

살하게 솟아나는 꽃대 하나쯤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입니다. 이 가을,

거둬들이며 갈무리 하는 것은 겨울을 이기고 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된 본연의 자세입니다.

선생님, 헌데도 유통의 준비가 허술합니다. 덮고 암고 신을 것을

봄부터 여름내내 손질했지만 정작 허술하고 허허롭게 비어있는 마음가짐 채우고

다숨겨 넣어줄 걸 찾지도 얻지도 못했거든요.

이제 다만 스스로 욕되지 않게 스스로 산행업길 바라면서 작은 소망 하나 마음에 담아봅니다.

영어의 몸으로 묶여있는 동안 36년, 음으로 양으로 은혜를 베풀어주신

고마운 분들을 향한 제 마음, 구겨지지 않게 녹슬지 않게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달하고 겪었던 고난을 더아프게 앓아주신 어머니들, 후원회원들이 계셨고

그들의 인도가 있었기에 오늘 이만큼이나 생각을 더듬어 살려내고 고마움을 새기면서

내일까지를 약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 저희 모두는 마음으로 받아 마스함으로

길러내고 있습니다. 동포애와 나자사랑의 거창한 말씀이나 몸짓없이 읊지를 밝혀주시고 몸소

실천의 일선에서 저희 열어있는 몸을 녹여주시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뵈옵는 날, 기약하고 싶습니다.

광주 감옥에서 삼가 양희철 드립니다.

*

- 양희철 님은 1934년 전북 장수에서 태어나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63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현재 36년째 수감중이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6월말 명동성당에서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고 대의원들에 대한 수배조치를 해제하라는 요구를 가지고 농성을 벌이다가 멀리 제주도에서 상경하신 부모님을 만나 뵙던 중 연행, 구속되어 얼마전에야 집행유예로 출소한 한총련 대의원 충북대 사범대 학생회장 이성근입니다.

먼저 민가협 어머님께 큰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지난 여름 저희들이 마음 아파할 때 항상 저희들 곁에서 힘 주시고 포근하게 감싸주셨던 어머님들이 계셨기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억울하게 구속된 우리학교 이순녀 학우와 강영재 학우 사건에 대해 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난 8월 청주 서부경찰서에서는 가지도 않은 한총련 출범식에 참석했다며 이순녀 학우에게 소환장을 보내왔는데 이순녀 학우는 자신이 그때 한총련 출범식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근거를 대면서 부당성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는 '잠깐만 와 봐라'라고 요구하였지만 모든 양심수가 그렇듯이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며 억지로 구속시킬 것이 뻔하다고 판단하고 불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0월 12일 밤 11시 학생회의실에서 밤 늦게까지 일꾼들과 가을농촌활동을 준비하고 있던 중 보수대에 의해 연행되었습니다.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신성한 학내에서 조차 사상·양심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야심한 시각 인신매매범들이 납치하듯 여학우 1명을 잡기 위해 건장한 형사 20여명이 들이닥쳐 끌고 가고 말았습니다. 연행 후 별다른 협의점을 찾지 못한 경찰은 이번에는 협의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름농활동안 농민 분들께 '이적표현물'을 배포했다는 것입니다. 연행 후 형사들은 농활을 진행했던 마을로 들어가 학교 교직원이라고 사칭하여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주려고 한다. 자료집 받았다고 확인해 달라."면서 순박한 농민 분들에게 확인서를 요구했고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 여기신 농민 분들은 본적도 없는 자료집을 받았다는 확인을 해주셨답니다.

또한 강영재 학우는 한총련 출범식을 앞두고 국민회의 중앙당사 항의방문을 진행했고 그로 인해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그후 출범식장에서 노래하는 모습이 헬기에 장착된 카메라에 찍혔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수배를 받기에 이르렀고 아버님의 사선을 넘나든 수술을 알면서도 병원 주위만을 맴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픔을 겪으면서도 항상 밝은 모습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큰 힘을 주며 열심히 살아오다 지난 7월에는 결국 가족과의 식사 도중 연행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강영재 학우를 연행한 그들은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한 전통적인 수법으로 자취방에서 몇 권의 책을 압수했는데 <다시쓰는 한국현대사>라는 박세길 씨의 책이 이적성이 짙다며 "이적표현물 탐독" 협의가 적용되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고 말았습니다. 이 책은 시중 서점에서도 구할 수 있고 요즘은 중학생들까지도 널리 읽는 출판물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군부독재 시절도 아닌 국민정부시대에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억울하고 부당한 일은 국민정부 출범이후 하루에 2,4명 꼴로 연행·구속되는 걸 보면 비단 이 두 명의 학우에게만 국한 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나라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저희들의 아름다운 노력들이 빨갱이로 매도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차디찬 창살아래 갇혀 지내는 아픔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 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따뜻한 애정과 사랑을 잊지 않고 좋은 세상 만들 때까지 열심히 살겠다고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 이 글은 지난 10월 29일 목요집회에서 충북대 사범대 학생회장 이성근 군이 시민들에게 발표한 내용이다.

- 1 - 민가협 목요집회 248회. 한가위를 맞아 양심수와 가족이 주고 받은 편지 낭송 집회. 김혜정씨가 남편 민경우(범민련 사건·부산교도소 수감중)씨에게 보낸 편지, 이훈희(홍익대 학생·목포교도소) 학생이 어머니에게 쓴 편지, 강용주(구미유학생사건·안동교도소) 씨가 어머니에게 쓴 편지 낭송을 했다. 가극단 금강이 노래로 양심수 석방을 염원.
-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주최로 인권법 법무부 시안에 대한 토론회(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 2 - 한나라당,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으로 구속된 한성기 씨 등이 안기부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
- 4 - 95년 8월 한총련 소속으로 평양에서 열리고 범청학련 통일축전에 참가하여 3년형 선고 받았던 정민주(인천대), 이해정(카톨릭대학) 학생이 공주와 홍성교도소에서 만기 출소. 공주교도소로 김정숙 상임의장, 서경순 전 상임의장, 홍성교도소로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이 마중다녀온다.
- 6 - 국제앰네스티, 미국 인권보고서 발표하고 앞으로 1년간 미국의 인권문제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혀
- 7 - 정치수배해제 조계사 농성단 격려방문
- 8 - 민가협 249회 목요집회. 가극단 금강과 가수 윤미진씨의 노래공연.
 - 경찰청 확대간부회의, 경찰의 총기발사대상을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으로 제한키로
 - 영동포경찰서 소속 형사, 연행중 놓친 절도용의자를 공포 탄과 실단 5발 쏴 겸겨
- 9 - 민가협 어머니들 명동농성단 격려방문
 - 김정숙 민가협 상임의장,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 홍근수 목사(민중생존권보장과 양심수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마포경찰서 방문. 마포경찰서장이 명동 성당 한총련 준법서약 철회 농성단에 보낸 경고장 들려 주고 그 부당성 지적.
- 10 - 민가협 운영위원회, 인권협(아·태 인권대회, 국보법철폐 캠페인, 인권타임캡슐 등) 보고. 8월 캠페인, 수련회 등 결산.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토론.
- 11 - 교육부, 학교폭력·체벌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생 인권선언' 마련해 12월 10일 공포키로
- 13 -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 87년 6월 항쟁 시위도중 사망한 이태춘 씨의 죽음이 과도한 시위진압과 최루탄 난사등 국가의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판결
- 행정자치부, 2천년부터 전자주민카드 시행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개정 추진
- 독일 뮌스터대학 송두율 교수, 황장엽 씨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 영남위원회 사건 첫 공판 열려, 용공조작·인권침해 공방
- 민가협 구속학생학부모회 서울대 대동제 기간(12일~16일)에 '양심수석방 기금마련 장터' 벌임.
-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김양무(범민련 부의장) 씨가 직장 암으로 판정, 안양병원에 입원. 민가협,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 14 -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 김양무 씨에 1개월간 구속집행 정지 결정
- 15 - 민가협 목요집회 250회. 어머니들이 장터를 열고 있는 서울대 학생회관 앞에서 진행.
 - '민권공대위', 명동성당에서 '양심수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준법서약 철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갖다.
 - 수원지방법원 민사 3단독(판사 오기두), 안기부 수사관들의 불법체포 사실과 관련, 김형찬 씨에게 국가가 1천만원의 위자료 지급하라고 판결
- 16 - 법무부·정책기획위원회, 인권법 시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 가져(프레스센터)
 - 서울지검 동부지청, 취재과정에서 검사의 방에 들어가 수사서류를 빼내려던 국민일보 변현명 기자를 절도미수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
 -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협의회'(수가협), 조계사에서 결성식 가져
 - 평양을 방문, 8·15 통일축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기소된 문규현 신부(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에 대한 첫공판이 서울지법 대법정 417호에서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다.
- 17 - 유신정권 때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문

- 의 죽음을 당한 최종길 교수(서울대 법대) 25주기 추도식 을 맞아 진상규명 본격화하기로('최종길 교수를 후원하는 사람들의 모임')
- 19 - 단병호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5월 1일 노동절 시위 등과 관련 경찰에 검거
- 20 - 유가협(회장 배은심) 회원들, 김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 방문, 의문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요구.
- 민가협 운영위원회,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열 번째 공연, 김양무씨(범민련 사건) 병원비 문제 등 협의. 인권법 공추위, 인권협보고.
- 21 - 문규현 신부, 강희남 목사(범민련 의장) 보석으로 석방.
- 부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종기 판사, 수사기관이 피의자 가족에게 영장실질심사 청구권을 통보하지 않은 채 청구한 영장에 대해 환송 결정
-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 국보법 위헌제청 신청
- 22 - 민가협 목요집회 251회. 최근 구속사례를 주제로, 윤종세 (대전충남연합 전 사무처장)씨 사건(동생 윤종명), 아남 반도체 노조 간부 구속사건(박영미 산업안전보건부장), 이상훈(홍익대생·한총련 관련)씨 사건(어머니) 발표.
- 인권법시안에 대한 인권법 공추위 종합토론회
-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민가협 김정숙 상임의장) 회원 70여명, 경찰청앞에서 경찰의 무분별한 총기사용을 규탄하는 항의집회 열고 경찰관 11명을 서울지검에 고발.
- 23 - 양심수후원회 10월 운영위원회. 후원회활동 및 회계보고, 역사기행,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대구 '만남의 집' 지원, 김양무 씨 치료비 문제 등 협의.
- 국제앰네스티,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개서한 보내 법무부의 인권법 시안과 국민인권위 구상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 최장집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자신의 한국현대사 연구를 왜곡보도한 〈월간조선〉에 대해 명예훼손 이유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제기
- 이해찬 교육부장관, "전교조 합법화 특별법 제정하겠다"고 밝혀
- 24 - 대구 김종호 선생님 방문하여 대구 '만남의 집' 전세값 추가비용으로 400만원 지원.
-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민중문화제(명동성당, 민권공대위 주최)
- 25 - 양심수후원회 10월 산행. 모두 19명이 함께하여 도봉산 입구 청룡사터-만경대-포대능선 산행
- 26 -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구속된 김명호 씨, 조사과정에서 구타·협박 등 강압수사 받았다고 밝혀
- 이종환 선생님의 새 보금자리 찾아뵈다. 이기욱 운영위원, 조명희 회원이 함께하다.
- 27 - 민가협 회원들, 의정부 교도소 방문. 양심수 인권침해와 관련 교도소장을 만나 항의하고 시정 촉구.
- 〈월간조선〉의 최장집 교수 논문 왜곡보도에 대해 민교협·학단협 등 조직적 대응 나서
- 주한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 미군범죄 회생자 추모제 개최
- 28 - 역사기행 답사(예산, 서산, 홍성지역). 이정태 회원이 애쓰다.
-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고송하 부장판사)는 김성학씨 등이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 당시 경기도경 경관 16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 재판에서 이근안과 현직경관 4명 등 8명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이고 8명 기각. 이근안에 공소 시효 2013년 10월말까지 15년 연장되다
-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 한국통신 노조가 '친북불순세력개입' 등 발언을 한 박홍 전 서장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 쪽에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확정.
- 29 - 민가협 251회 목요집회. 최근 구속사례 발표. 단병호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구속(김성혁 금속산업연맹 쟁의부장), 국가보안법의 무리한 적용으로 구속된 충북대 강영재, 이순녀학생 사례(이성근 충북대 사법대회장), 경찰의 총기남용사례(순천향대 곽상우 공대 회장) 발표.
- 김대중 대통령, "불법감청과 고문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지시
- 31 -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 민중대동제 열림(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 민권공대위 주최).
- 민족민주열사 추모(기념)사업회 연대회의 주관으로 열린

‘열사의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주제’
방문(한양대).

- ‘만남의 집’과 무연고 출소장기수 7분께 생활지원비 드립
- 양심수 173명(미결)에게 영치금 발송.

- 워싱턴 수도장로교회(조명철 목사님)에서 보내주신 성금 (1,590달러)으로 장기수 20분에게 영치금 발송, 양심수 민경우, 이화춘, 장창호, 최호경 자녀에게 자녀돕기 성금 전달.

회·원·소·식

- 10월 11일, 신유호 회원 아버님(신향식 선생님. 남민 전 사건으로 처형당함)의 16주기를 맞아 가족친지와 사회각계인사 40여명이 광주공원묘지의 묘소를 참배하고 추도모임을 가졌습니다.
- 조창손 선생님 70회 생신을 맞아 음시롱감시룡 회원들이 낙성대와 봉천동 ‘만남의 집’ 선생님들을 모시고 조촐한 점심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더욱 건강하셔서 통일되는 날, 고향과 가족품으로 돌아가시길 빕니다.
- 대구 ‘만남의 집’에 계신 김종호 선생님이 새 집으로 이사하셨습니다(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 466-1). 대경 지구 양심수후원회 여러분이 애쓰셨습니다.
- 고유형 회원이 지난 9월 20일, 박동연 씨와 백년가약 을 맺었습니다. 언제나 민가협 일이라면 발벗고 달려 오던 고유형 회원의 결혼을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행복하세요!
- 서미영 회원과 이동현 회원이 오는 12월 5일(토) 2시 서초중앙감리교회(교대역)에서 혼례를 올립니다.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 지난 8월 15일 풀려난 황인욱 님과 정언영 님이 11월 15일(일) 오후 1시, 평창웨딩하우스에서 혼례를 올립니다. 92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함께 구속되어 수감중에 태어난 단하(6살)가 예쁜 그림 청첩장을 만들어 엄마 아빠 결혼을 기뻐해 달라고 했습니다. 오랜 세월 시련속에서 영글어온 사랑, 단하와 함께 아름답게 가꿔가세요. 축하합니다.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5년 육고를 치루고 지난 8.15 사면때 풀려난 유재선 선생님이 구속되어 조사 받는 과정에서 잔혹한 고문으로 무릎관절을 상해 9월 24일 의정부 성모병원에 입원, 10월 3일, 15일, 11월 4일 세차례에 걸쳐 관절 수술, 백내장 수술, 축농증 비

염 수술을 받고 치료중이십니다. 쾌유를 빕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6층 6207호/ 0351-820-3262)

- 지난 8월 풀려난 백태웅 님(사노맹 사건)과 전경희 님이 오는 12월 19일(토) 오후 3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늦깎이 결혼식을 올립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두 분의 하나된 시작에 많은 축복의 마음들 보태어 지기를 기원합니다.

북녘동포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희숙(8,9,10월) 30,000

권오현(8,9,10월) 300,000

알래스카 NAM.E (8월) 100달러

김강석(9월) 36,000

북녘동포돕기 성금 계좌는 계속 열려있습니다.

제일은행 159-10-001411 권오현양심수후원회



11월 산행

- 언제 : 11월 29일(마지막 일요일) 오전 10시
- 어디로 : 관악산
- 모이는 곳 : 낙성대역(지하철 2호선) 가 매표소 앞
- 준비할 것 : 따뜻한 물, 도시락, 회비 3천원